

###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1차회의

일시: 2011년 3월 14일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5기 독자위원회 2011년 1차 회의가 지난 14일 광주시 동구 급남로 2가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주정 여론매체부장이 참석했

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올 한해 광주일보가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부분을 고치고 지향해 나가야 하는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새날학교 공립화·광주 FC 보도, 지역 이슈화 관심 유도”

이철갑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위원장)



순천보선 무공천 논란  
지역민 입장서 보도를

김병인 (서강대학 사회복지행정학부 교수)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지속적인 관심 가져 달라

조연술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장)



유통구조 문제점 해부  
집중조명 시리즈 필요

최병렬 (광주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광주일보의 정체성 제시  
고정 독자층 확보 힘써야

경훈 (사) 행복문화사업단 본부장)



K리그 광주FC 출범  
시민관심 끌어내주길

▲이철갑=제5기 독자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독자위원회는 따끔한 비판과 진심 어린 충고로 광주일보가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독자위원들의 가장 없는 의견 부탁드린다.

▲김병인=지난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획 시리즈는 돋보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소홀한 감이 있었다.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고, 2020년이면 외국인 500만 시대 온다는 통계도 있다. 이런 면에서 다문화 가정 기획시리즈는 문제제기에서부터 대안 찾기까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지적해줬다.

새날학교가 광주시교육청이 공립학교 인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해도 정식 개교를 하지 못했다. 전국 최초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공립 대안학교인 만큼 광주일보가 앞장서 관심을 가져달라.

▲조연술=언론은 독자가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독자를 위해 언론은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고 불거리를 제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 지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다. 광주일보는 예전부터 경제관련 기획을 비롯해 르포를 통해 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홀한 것 같다.

다. 광주·전남북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체감을 집중적으로 다뤄 주고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집중조명 시리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광주·전남북의 다양한 경제비전을 제시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최병렬=언론이 정치에 치우치는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언론이 공유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광주일보가 발전하고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광주일보만의 특색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광주일보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광주일보만의 정체성을 제시해 고정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기사들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해답은 부족하다. 문제를 제시했으면 현상과 과정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이다. 독자들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

▲경훈=지난 9일자 '광양 청매실농원 성공 이유' 특산품에 문화 옷입혀 '감성 마케팅'이란 기사를 관심을 갖고 봤다. 청매실농원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사례와 농촌진흥청 연구원의 논문을 인용해 잘 보도한 기사였다. 지역의 이슈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는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광주 FC가 최근 K리그에 진출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7일자 '광주 FC 출범 좋다'라는 기사는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앞으로 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시민 구단이라는 점에서 승배 보다 경기장, 선수, 관중 등 재미있는 축구장 이야기들을 기사화해달라.

▲임선숙=지난 4일자 '구제역 청정 지대로 빛 발하는 전남 친환경

농업' 기사는 최근 구제역과 AI사태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에 좋은 소식이였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전달에 그쳤다. 친환경농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제품 생산, 포장, 유통 등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갖춰졌는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전달했다면 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층더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큰 사회적 문제가 됐던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와 관련된 보도에서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언론까지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지 않은 것 같다. 과장된 부분이 있어 독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요숙=광주일보는 매년 새해 기획에 있어서 새해 이슈와 희망을 주로 다뤘었다. 이는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신년 기획에서는 그런 점들이 부족했다. 최근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문화도시 표방하는 광주에 꼭 필요한 기사다. 하지만 계속 낱짜가 정기적이지 못하고 앞으로 몇 회에 걸쳐 어떻게 게재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독자를 위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광주일보 주말 경제면은 독자, 특히 주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설이 지나고 세뱃돈 활용, 전세파동 관련 등 주부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사들이 신선했다. 하지만 1월 22일자 '설 뽕나눔, 품격있는 우리 맛 좋조'라는 기사에는 60~150만원대의 고가의 설 상품이 소개됐다. 설 선물은 가격보다 정성이 중요하다. '고가가 아니면 품격이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조미옥=교육에서 신문과 책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크다. 부모나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과 관련해 신문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 광주일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되어 달라. 이런 점에서 학생도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써달라. 14일자 '전문계 학생 수 인문계 5분의 1' 기사는 교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우물한 기사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광주에서 인문계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시골로 전학을 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전문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의 문제인 것 같다. 언론이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김현석=구제역·AI 사태 이후 살처분 매몰에 따른 2차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일보는 1월 7일 '살처분 매립 능사인가' 기사를 1면에 보도하면서 한발 앞서 문제점을 지적해줬다. 최근 몇 년 간 광주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자살 고려 퍼센트도 광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과 자살 충동과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의 자살 고려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



지난 14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5기 독자위원회 1차회의에서 독자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임선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빛 발하는 친환경농업'  
더 자세한 정보 아쉬워

이요숙 (송은갤러리 관장)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시의적절한 기획 시리즈

조미옥 (나주 봉향중학교 교사)



학부모 인식전환 유도  
전문계 고에 더 관심을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살처분 매립 능사인가'  
구제역 문제 지적 좋았다

▲이철갑=지난 1월 3일자에서 광주일보는 '광주공항·무한공항 존재', '구간 경제조정', '호남고속철도 구간 노선', '영산강 살리기 사업' 등을 지역민의 최대 관심사로 꼽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 전개 과정에 대한 기사가 부족한 것 같다. 최근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순천무공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순천지역문제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여야는 물론 지역민의 입장에서 보도해 달라.

/정리=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www.musicalyounge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 뮤지컬 광화문 연가노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DJm 뮤지컬 광화문연가